

26/02/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음 산티

2000/03/03

특별한 생일 선물은 너희들이 순수한 느낌과 사랑의 느낌을 허락해서 끌어내고

화라는 거대한 적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의 생일 동반자들과 그의 봉사 동반자들을 보며 기쁘다. 오늘 너희들은 모두 밥다다의 알로키(영적인) 생일의 행복과 함께 그의 탄생 동반자들의 생일의 행복을 즐기고 있다. 왜냐? 다른 어느 누구도 것처럼 고유하고 지극히 사랑스러운 알로키 생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아버지의 생일이 자녀들의 생일과 같은 경우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너희들은 모두 다이아몬드처럼 귀중한, 이 고유하고도 사랑스러운 알로키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너무나 고유한 나머지 신 자신이 자녀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이 알로키 생일의 고유함과 사랑스러움을 알고 있다. 지고의 영혼은 자녀들, 즉 고양된 영혼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말로만 그들을 창조한 분은 신, 즉 지고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갖고 살지도 않는다. 너희들은 모두 경험을 바탕으로 너희가 신의 가문에 속하거나 브라마의 가문에 속한다고 말한다. 지고의 영혼은 너희의 생일을 축하하고 너희들은 신의 생일을 축하한다.

오늘 너희들은 사방 곳곳에서부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느냐? 인사를 주고 인사를 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밥다다는 특히 그의 생일 동반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그는 또한 그의 봉사 동반자들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을 축하함과 동시에 밥다다는 또한 너희에게 지고의 사랑의 진주와 다이아몬드와 장식물의 비를 뿌리고 있다. 너희들은 사랑의 진주를 보았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랑의 진주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들을 아느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꽃과 황금을 뿌려주지만 밥다다는 너희들 모두에게 지고의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진주를 뿌려준다. 밥다다는 너희들을 단지 1배만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수, 수, 수백만 배의 축하를 하고 있다. 너희들도 역시 가슴으로부터 축하를 하고 있다. 그것이 또한 밥다다에게 와 닿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축하의 날이자 인사를 하는 날이다. 너희들은 뭔가를 축하할 때 무엇을 하느냐? 밴드가 연주를 한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밴드와 하모니엄과 너희들 마음의 행복의 노래들을 듣고 있다. 신봉자들은 계속 소리쳐 부르고 있는 반면에 너희 자녀들은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에 결합시킨다. 너희들은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안다, 그렇지 않느냐? 이 결합이 너희를 대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밥다다는 자녀들을 그분 자신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자녀들도 역시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마야의 게임에 의해 약간 멀어진다. 밥다다가 말한다: 나는 너희 자녀들의 의지할 곳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짓궂다, 그렇지 않느냐? 마야가 그들을 짓궂게 만든다: 너희들은 진정으로 그렇지 않은데, 마야가 너희를 그렇게 만든다. 마야는 너희가 이 의지할 곳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다다는 너희들의 의지할 곳이 되고 너희를 가까이 데려온다. 밥다다가 너희 모든 자녀들에게 묻고 있다: 너희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외국인들은 두 가지를 매우 좋아한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두 단어이다. (동반자Companion와 벗Company.) 너희들은 이 두 말을 모두 좋아한다. 그 말들을 좋아하면, 한 손을 들어보아라! 브라트에서 온 사람들도 그 말들을 좋아하느냐? 동반자는 필수적이고 벗도 역시 필수적이다. 너희들은 동반자 없이 머무를 수 없고, 벗이 없어도 안 된다. 자, 너희들 모두는 누군가를 찾았느냐? 너희들은 너희의 동반자를 찾았느냐? "하 지"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 지"라고 말해라! (하 지.) 너희들은 벗을 찾았느냐? (하 지.)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서 그와 같은 벗이나 동반자를 만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이전 사이클에 그들을 찾았느냐? 그는 결코 멀어지는 법이 없는 그런 동반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짓궂게 되어도, 그는 여전히 너희의 의지할 곳이다. 그는 또한 너희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결실을 충족시켜준다. 어떤 결실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진정 마음으로 "네"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건성으로 "네"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노래한다. 아니면 아직도 얻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얻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얻었느냐? 아직도 얻을 것이 더 남아 있는가? 아니면 아직 몇 가지 소망이 남아 있느냐? 너희들의 모든 소망이 충족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몇 개가 남아 있느냐? 밥다다는 아직 몇 가지 소망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다. 아버지는 왔는데 어떤 자녀들은 빠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가 그들의 끊임없는(영원한)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적어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밥다다의 특별한 소망이다. 나머지 유한한 소망들은 충족되었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 소망은 아직 남아있다. 너희들 각자는 무대에 올라가길 원한다. 너희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제 바바 자신이 모든 이들에게 온다.) 이 소망도 역시 충족되었느냐? 너희들은 충족된 영혼들이다. 축하한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들이 지각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때에 의하여, 너희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도 역시 드라마의 굴레에 묶여 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은 때에 의하여, 항상 끊임없이 만족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충족감의 보석으로 빛난다. 왜냐? 너희들 자신이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것들은 브라마 바바가 첫째로 경험한 말이다. 그러므로 브라마 바바의 말은 모든 브라민들의 말이다. 따라서 밥다다는 너희 자녀들 모두가 변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벗하며 머물러라. 아버지는 너희들이 그와 모든

관계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심지어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의 모든 관계라고까지 말한다. 너희들의 모든 관계가 바바와의 관계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가 하는 일에서 때에 맞게 각 관계를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때때로 필요로 하는 모든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면 너희들은 동반자와 함께 벗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너희의 마음과 지각은 다른 동반자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 밥다다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의하고 있다. 밥다다가 너희들에게 모든 관계를 내어주고 있으니, 모든 관계에서 오는 이 행복을 즐겨라. 너희가 하는 일에 이 모든 관계를 사용하라.

어떤 자녀들이 때때로 외롭다거나 약간 메마르다고 느끼는 것을 볼 때, 밥다다는 '이런 고양된 벗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가 하는 일에 이 벗을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자비심을 갖는다. 그럴 때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왜요? 왜요?"라고 한다. 밥다다는 너희에게 "왜"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 "왜(why)"라는 말은 부정적인 반면에 "날아간다(fly)"는 말은 긍정적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왜요? 왜요?"라고 묻지 말고 그 대신에 "날아간다"는 말을 기억해라. 아버지를 너희의 동반자와 벗으로 만들어서, 날아라. 너희들은 굉장한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하루 종일 모든 일을 하는 동안 바바를 동반자와 벗의 두 형태로 사용하라. 너희들이 그런 동반자를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밥다다는 심지어 "두 형태 중 어느 하나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해지면, 너희의 동반자는 두 가지로 너희를 마사지해 줄 준비도 되어있다"라고까지 말한다. 그는 항상 너희들을 즐겁게 해 줄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면 어떤 유한한 오락도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바바를 이와 같이 사용할 줄 아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그저 그가 가장 위대한 아버지이며, 선생이고 사트구루라고만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모든 관계를 의미한다. 2종의 외국인들은 이해했느냐?

앗차, 너희들 모두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 그렇지 않느냐? 앗차, 너희들이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느냐? 아니면 선물을 주지 않느냐? (너희들은 선물을 준다.) 그러니, 오늘 너희 모두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다. 그것은 쉬브 라트리라고 불린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러 너희가 특별히 왔다. 너희들은 그것을 축하하러 왔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오늘 생일을 위해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그저 촛불을 켜고 케이크를 자르려 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축하할 것이냐? 너희는 오늘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아니면 내일 선물을 줄 것이냐! 너희들은 큰 선물이든 작은 선물이든 선물을 준다, 그렇지 않느냐? 자, 너희는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너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앗차, 너희들은 그것을 주고 싶으냐? 그것을 줄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들은 밥다다가 요구하는 대로 무엇이든 주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밥다다가 요구하는 것으로 무엇이든 주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주고 싶은 것을 주겠느냐? (우리는 바바가 원하시는 것으로 무엇이든 주겠습니다.) 조심해라! 너희들은 조금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용기가 있느냐? 마두반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느냐? 2종의 외국인들은 용기가 있느냐? 너희들은 손을 매우 잘 든다! 앗차, 삭티들과 판다브들은 용기가 있느냐? 바라트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느냐? 아주 좋다! 밥다다는 이 인사들을 받는다. 앗차, 바바가 너희에게 말해야겠느냐? 너희들은 이것에 관해 생각해보아야겠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가, 가(ga, ga)"라고 말하지 말라. ("가ga"가 동사에 첨가되면 미래 시제가 된다. 즉, '우리는 그에 관해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 언젠가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가 된다.) 밥다다가 너희들 대다수에게서 한 가지를 보았다.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이다! 바바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 앞에 상황이 닥칠 때마다, 대다수는 3급의 화를 낸다. 1급, 2급, 3급이 있다. 그들이 원치 않아도 3급의 화의 흔적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큰 화의 형태로 나오고, 어떤 이는 완력의 형태로 화를 내고, 또 어떤 이는 짜증의 형태로 세 번째 유형의 화를 낸다. 너희들은 짜증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 그것도 역시 화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약간 덜하다. 그것은 세 번째 유형이고 따라서 약간 덜하다. 첫 번째 유형은 아주 강력하다. 두 번째 유형은 그것보다는 약간 덜하다. 오늘날 너희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왕족다워졌다! 무슨 말을 왕족답게 하느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완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모든 이들에게서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 화는 물론이고 화의 흔적조차 조금도 없어야 한다. 왜냐? 너희가 화를 내면 봉사에 해를 끼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화는 항상 두 사람 사이에 표출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혼자일 때는 화가 표출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에 화가 표출되고, 그러면 그것이 눈에 띈다. 만일 마음 속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틀림없이 너희의 마음 속에 그 영혼을 향한 완력이 있을 것이다. 밥다다는 봉사에 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유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화라도 조금의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이 순결한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욕이 큰 책임을 기억하듯이 화도 역시 큰 적이다. 화는 너희의 순수한 느낌과 사랑의 느낌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다음 너희들의 기분을 망치게 된다. 너희들은 그 영혼에게서 물려서게 된다. 너희는 그 영혼 앞에 가지도 않고 그 영혼에게 말도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영혼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 거부한다. 너희는 그 영혼이 발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바깥의 사람들조차도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너희는 "오늘 저 사람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사실 별것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 생일 선물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중 그렇게 해보아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손을 들어라! 이 선물을 줄지 생각해볼겠다는 이들, 해보겠다는 이들은 손을 들어라! 주님은 정직한 마음에 대해 진정으로 기쁘다. (몇몇 형제, 자매들이 일어섬.) 그들은 서서히 일어서고 있다. 진실을 말해준 것에 대해 축하한다! 앗차, 너희들 중 누가 해보겠다고 말했느냐,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1달을 원하느냐? 6개월을 원하느냐? 시간을 얼마나 원하느냐? 너희는 이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느냐? 해보겠다고 말한 이들은 다시 일어나 보아라! 2~3개월 동안 해보고 나서, 그 다음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앉아도 좋다. 6개월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6개월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봉사에 해를 끼치는 이것은 눈에 띈다.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밥다다는 용기를 잃지 않은 너희들 모두에게 지식과 사랑과 행복과 평화의 진주를 뿌려주고 있다. 앗차.

그 보답으로 밥다다는 특별히 너희들 모두에게 이 축복을 선물로 준다: 언제라도, 심지어 너희가 바라지 않는 실수를 했더라도, 화가 표출되면 단순히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다정한 바바(Sweet Baba)"라고 말하기만 하여라. 그러면 용기를 유지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추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다정한 바바"라고 말해라, 그저 "바바"라고만 하지 말고 "다정한 바바"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희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도움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목표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목표를 간직함으로써, 너희들은 틀림없이 필요한 자격을 발전시킬 것이다. 마두반에서 온 이들은 손을 들어라! 앗차. 너희들은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하 지). 축하한다! 아주 좋다! 오늘 바바는 마두반에서 온 너희들 모두에게 특별한 톨리를 주겠다. 너희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그들은 화에서 자유로워지는데 대해 톨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데 대해서 받는다. 너희들이 손을 들어서 톨리를 받는다고 모두가 생각할 것이다. 너희들은 매우 열심히 일한다. 마두반은 봉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충족감을 주는 모범이다. 그러니 오늘 바바가 너희의 입을 달콤하게 해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너희의 입이 달콤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을 달콤하게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들은 모두 "평화의 문화(The Culture of Peace)"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이것 역시 브라민 가족의 문화 중 하나이다. 브라민 가문의 매너는 가장 최고의 문화이다. 밥다다는 다디들이 선물을 줄 때, "적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정하게 말하라!(Speak less, Speak softly and Speak sweetly!)"라고 적힌 천으로 된 가방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밥다다는 너희에게 이 선물을 주고 있다. 천으로 된 가방을 주지는 않지만, 축복의 형태로 선물로 주고 있다. 브라민 문화는 모든 브라민의 얼굴과 행동에 드러나야 한다. 너희들은 저 프로그램들을 열 것이고, 강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희 자신 안에 이런 매너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각 브라민들은 미소를 지으며 남들과 접촉해야 한다. 한 사람과는 이런 유형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유형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남을 만날 때 너희의 문화를 버리지 말아라. 과거의 일들은 잊어라! 너희의 삶 속에 새로운 매너의 산스카라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지금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괜찮으냐? (모두가 "하 지"라고 말했다.)

2종의 외국인들 대부분이 "하 지"라는 대답을 아주 잘하니, 매우 좋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바랏와시에게 있어서 "하 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 규범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저 마야에게 "나 지"라고만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영혼들에게는 "하 지, 하 지"라고 말하고 마야에게는 "나 지, 나 지"라고 말해라. 앗차. 너희들은 모두 생일을 축하했느냐? 너희는 생일을 축하하고 선물을 주었느냐? 너희들은 선물을 받았느냐? 앗차.

사방 곳곳의 가장 고귀한 모든 브라민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와 벗하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자기의 동반자로 만드는 사랑이 많은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아버지의 미덕의 대양에 잠겨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대등한 이들에게, 밥다다의 고귀한 영혼들에게, 1초 만에 끊임없이 완전한 종지부(bindu)를 찍는 마스터 대양(sindhu)인 영혼들에게, 사랑과 기억과 많고, 많은 축하와, 축하와, 축하를 밥다다가 보낸다. 밥다다는 각 자녀들에게 항상 나마스떼라 말하고, 오늘도 역시 나마스떼라 말한다.

**Blessing:** 지식의 태양 마스터가 되어서 암흑을 내몰고 세상에 빛을 주어라. 암흑을 쫓아내고 세상에 빛을 주는 이는 지식의 태양 마스터다. 영혼은 빛의 화신이고, 빛과 힘의 형태이며, 남들에게도 역시 빛과 힘을 준다. 한결같이 빛이 있는 곳에는 암흑이 있을 수 없으며, 어둠은 약간이라도 있을 수 없다. 세상에 빛을 주는 자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 "완전한 순수성"이란 빛을 의미한다. 그런 영혼들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즉 악덕의 흔적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Slogan:** 너희의 성질, 산스카르, 관계, 연결에서 가벼움을 지속하는 것이 조화로워지는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